노사발전재단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1.(수) 16:00 (2026. 11. 12.(목) 조간)

“온(溫) 세상 안전” 노사발전재단, 겨울 배달 노동자 이륜차 안전 점검

- 11.9~12월 서울·경기·대구·울산서 이륜차 안전점검 전개 -
- 이륜차 안전검검·한랭질환 예방·마음안전 워크숍 -

노사발전재단(사무총장 박종필)은 **11월 11일(수)** 울산북구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**배달·이동노동자**를 대상으로 **이륜차 무상 안전점검**과 **방한용품 지원**, **건강상담** 등 **겨울철 안전 캠페인**을 **실시**했다. 11월 9일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겨울 안전활동의 첫 현장으로 12일(목)에는 대구 검단들공원에서 이어진다.

이번 캠페인은 재단이 계절별 노동환경과 직종별 위험 요인에 맞춰 추진해 온 **「안전이음 프로젝트 – 사계(四季)」**의 겨울 활동으로, 봄(이륜차 안전점검), 여름(폭염 예방), 가을(택배 화재 예방)에 이어 **“온(溫)세상 안전”**이라는 슬로건으로, **겨울철 취약 노동자**의 **정서적 지원**, **안전사고 예방**과 **건강 보호** 활동을 펼친다.

겨울철은 일조량일 줄어 스트레스와 우울감, 피로가 쌓이기 쉽고, 기온 하락과 도로 결빙으로 사고 위험도 커지는 계절이다. 재단은 이러한 계절 요인에 취약한 감정노동자, 배달노동자,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**▲마음안전 워크숍을 통한 정서지원, ▲한랭질환 예방 캠페인, ▲이륜차 안전점검 및 건강상담**을 11월 9일부터 12월까지 서울·경기·대구·울산 등에서 이어간다.

첫 안전활동으로는 추운 야외에 노출되는 **배달노동자**를 위해 **이륜차 안전점검**을 **실시**했다. 미끄러운 도로에 대비하여 이륜차 정밀 안전점검 및

소모품 교체를 지원하고,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**방한용품**을 **제공**했다.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가 잠시 쉬며 건강을 살필 수 있도록 **따뜻한 음료**와 함께 **건강상담**도 **병행**했다.

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"**취약노동자들**은 급변하는 **겨울철 기상 여건**에 따라 **안전과 건강에 대비하기 어려**워 업무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"라며, "이러한 계절적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**맞춤지원**으로 **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**에 앞장서겠다"라고 덧붙였다.

담당 부서	노사발전재단 노동권익증진팀	책임자	팀 장	마계희 (02-6021-1065)
		담당자	선임전문위원	라승혁 (02-6021-112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